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윤 선 영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윤 선 영

# 인 준 서

윤선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울산 소재의 Y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들로 실험집단 5명, 비교집단 5명으로 유의표집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 8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 회기 당 40분 씩 주 2회, 총 14회기로 진행되었다. 14회기 실험 기간 동안 실험집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래심리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동안 비교집단은 기존에 학교에서 시행하던 독서시간을 가졌다. 실험 전 두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ASSIS)와 자아존중감(SEI)을 측정된 결과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중재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Mann-Whitney U 검정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비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1$ )를 보였다.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결과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점수에서 실험집단은 사전·사후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은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해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 .....	4
<b>II. 이론적 배경</b> .....	6
1. 다문화가정 아동 .....	6
1) 국내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	6
2)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징 .....	7
3)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	9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	11
2. 노래 심리치료 .....	13
1) 노래의 치료적 기능 .....	13
2) 노래심리치료 .....	15
<b>III. 연구방법</b> .....	20
1. 연구대상 .....	20
2. 측정도구 .....	21
3. 연구설계 .....	22
4.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	24
5. 자료 분석 .....	31

<b>IV. 연구결과</b> .....	<b>32</b>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정 .....	32
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	33
3. 자아존중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	38
<b>V. 결론 및 제언</b> .....	<b>43</b>
1. 결론 및 논의 .....	43
2. 제언 .....	45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1
<표 3>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2
<표 4> 사전/사후 실험-비교집단설계 .....	23
<표 5>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	24
<표 6>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	25
<표 7>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	32
<표 8>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	33
<표 9>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33
<표 10>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	34
<표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35
<표 12> 자아존중감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	38
<표 13> 자아존중감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39
<표 14>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	40
<표 15>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40

## 그림 목 차

<그림 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평균점수 .....	34
<그림 2> 지각된 차별감 .....	36
<그림 3> 지각된 적대감 .....	36
<그림 4> 두려움 .....	37
<그림 5> 문화충격 .....	37
<그림 6> 죄책감 .....	38
<그림 7> 자아존중감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평균점수 .....	39
<그림 8> 총체적 자아존중감 .....	41
<그림 9> 사회적 자아존중감 .....	41
<그림 10> 가정적 자아존중감 .....	42
<그림 11> 학교 내 자아존중감 .....	42

## 부 록 목 차

<부록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	58
<부록 2> 자아존중감 척도 .....	6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 과학과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중에서도 인적자원의 교류는 국내 사회에 다인종·다문화(multiethnic and multiple cultures)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아동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국내 출생률은 전년 대비 9.9% 감소한 반면, 다문화가정의 출생률은 4.9%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출생률 증가는 학령인구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다. 2015년 다문화가정 초·중·고 및 대안학교의 전체 재학생 수는 6만 7,806명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이는 2006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이데일리, 2015. 04. 25), 국내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문화라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가정과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극복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이광성, 2012).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언어발달 지연, 학습결손 등이 나타나고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학교 부적응, 문화 부적응, 높은 우울감, 자아정체감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박주희, 남지숙, 2010; 변미희 외, 2011).

이중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신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판단하는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자신의 이중문화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또래와 다른 외모 및 가정상황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적응 및 또래 관계형성에도 어려

움을 겪는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Kim, 2008; 정정화, 이강이, 2014).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 건강가정진흥원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217개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다누리(다문화가족 지원포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언어발달, 예술중심 프로그램, 체험중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언어발달에서는 언어치료와 한국어교실이, 예술중심 프로그램에서는 미술심리치료, 어린이 합창단, 소집단 음악치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다누리, 2015).

이 중에서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 발달을 위해 사회성, 언어발달,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0년도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정태미(2009)는 음악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김연진(2015)은 유리드믹스 음악놀이를 활용한 정서순화예술놀이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순화와 사회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최진영(2015)과 이경미 외(2011)는 노래 중심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를 향상시켰음을 입증하였으며, 김은선(2011)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가 언어표현력 뿐 아니라 자기표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음악치료에서 노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방안으로 사용된다. 아동에게 가장 친숙하고 흥미로운 음악활동인 노래 부르기는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구조화된 리듬과 멜로디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최미영, 2010).

이렇듯 언어발달에 효과적인 노래는 심리·정서적 접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노래에 함축되어 있는 음악적 요소는 언어표현보다 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목소리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상태가 잘 반영된다. 또한, 노래의 다양한 주제와 가사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 은유, 비유 등의 표현은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순진이, 2002). 이와 같이 노래심리치료는 노래와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여 현재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적 접근의 음악치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황혜진(2014)은 전래동요 중심의 노래부르기, 가사토의,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으며, 정현정(2009)은 노래심리치료 기법과 즉흥연주를 함께 활용한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김숙정(2011)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악기연주, 노래만들기, 노래부르기 활동의 창작 음악극 만들기가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심리·정서적 접근의 음악치료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는 언어발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리·정서적 접근의 음악치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노래심리치료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노래심리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
  - 1) 노래심리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2. 노래심리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
  - 1) 노래심리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내 자아존중감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3. 노래심리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에서 사전·사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 1) 노래심리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점수에서 사전·사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4. 노래심리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자아존중감 점수에서 사전·사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 1) 노래심리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총제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내 자아존중감 점수에서 사전·사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가정 아동

#### 1) 국내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이 혼인한 관계’ 또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 또는 국적을 취득한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그러나 최근 국내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국제결혼가정 외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새터민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정의 구성형태는 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국제결혼 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대량 유입되었고, 1990년대 이후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총각이 증가하고, 여성의 도시 이주현상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신혜정, 2007). 특히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맺으며 비교적 입국이 쉬운 조선족 여성이 농촌총각과 결혼을 하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양승민, 2007). 2000년 초부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필리핀,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몽골, 타이 등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적이 다양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2014)’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

자의 수는 2010년 141,654명에서 2014년 150,9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40.2%로 가장 높으며 베트남 26.3%, 일본 8.3%, 필리핀 7.3%순이다(법무부, 2015). 국제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이유로는 조선족 여성은 우리와 민족의 동질성이 같아 다른 출신국의 결혼이민자 여성보다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어 국내 사회에 잘 적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수자, 2004).

국제결혼 이민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도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법무부, 2015). 이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 추세로 볼 때 향후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국내 인구의 5%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최 현, 2014). 현재 정부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국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문화적 차이, 사회적응, 의사소통,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에 대해 다차원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이순형 외, 2011).

## 2)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징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최진영, 2015). 이들은 ‘혼혈아’, ‘코메리칸’, ‘아메리시안’, ‘아이꼬노’, ‘코시안’ 등으로 불리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이라는 인종차별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로 2004년 시민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 2세 또는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만 6세 미만 아동은 56.8%(117,877명), 만 7-12세는 27%(56,108명), 만 13-15세는 9%(18,827명),

만 16-18세는 7.2%(14,881명)로 집계되고 있다(다누리, 2015). 이 중에서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에는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2015. 04. 28).

다문화가정 아동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문제점 또한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두드러진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언어발달의 지연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은 한국말이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가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에 언어자극을 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권희연 외, 2010; 정은희, 2004; 정은희 외, 2012; 황상심, 2010). 김영란, 김영태(2011)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은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비해 낮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14.7%가 말투나 말씨 등 언어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으며, 19.8%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정하성, 우 룡, 2007). 이로 인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 과목이 취약하며 쓰기, 읽기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순희, 2013).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부족은 의사소통 뿐 아니라 읽기, 쓰기 등의 학습결손으로 이어져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더 많이 경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가중시킨다(심우엽, 2009). 조영달(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가정 아동은 주로 '잘난 체 해서' 따돌림을 경험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피부색과 외모로 인해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부적응은 학교 중도 탈락이라는 현상까지 야기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취학률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져

초등학교 78.2%, 중학교 56.3%, 고등학교 35%의 취학률을 보이며, 전체 취학연령 중에서 66.8%만 학교를 다니고 있다(교육부, 2012). 이러한 학교 중도 탈락현상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일탈과 비행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져 사회부적응까지 초래할 수 있다(박진우, 장재홍, 2014).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향후 잠재 위험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성 혼란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어, 가치관, 외모 등에서 일반가정 아동과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면서 부모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우희숙, 2013). 금명자 외(2006)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신을 스스로 한국인(35.7%)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한국인 외국인 모두(42.9%)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보다 높다고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3)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인이 자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차이를 직면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라고 한다(Berry, 1997).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특히,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배우고 익히는 상황에서 가

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로 이루어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의 나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김형인, 2006). Brian, et al.(2000)은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의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인종차별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Ehlers, et al.(2009)은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알코올의존이나 약물 의존,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과도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결혼이주 여성들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 수준, 자신의 모국과 모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도 높게 나타난다(임은미 외, 2010; 김현실, 2012; 이해경, 전해인, 2013; 이인선, 2004).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중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령기 전에는 주로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아 가정에서 나타난다.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와 동반된 양육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다문화가정 아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은선경, 2013).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령기 전에 위축,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노출된다(이원령, 2013). 학령기 후에는 학교에서 자신과 일반가정 아동과는 다른 외모, 가정환경, 교육방식, 문화 등의 차이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문화적 차이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노충래, 2000).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아정체성의 혼란,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및 우울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공격성, 분노 폭발, 적대적 태도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Root, 2001; 우희정, 2015). 진은영(2015)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응, 학교생활 적응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응과 학교 적응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대하여 개인이 자기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성취경험과 타인으로부터 반영된 자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하였다(백지숙 외, 2014, 재인용). 즉,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 가치 등을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미래의 행동과 확신,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발달 요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최경숙, 2006).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긍정적인 자신의 평가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취의 욕구가 강하며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특성을 보인다(윤지인, 최범식, 2009).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껴 자신에 대해 회의적이며, 높은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는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 와 사회성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김미숙 외, 2011). 일반가정 아동과 다른 자신의 외모, 가정환경, 교육방

식 등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학교 생활에서의 따돌림과 차별의 경험은 이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원령(2013)은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우울, 불안,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울과 불안보다는 위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슬픔, 두려움, 낮은 자기규제의 특성을 나타내며(김아영, 김수인, 2011), 소극적인 표현력,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김숙정, 2011).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교부적응으로도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이다. 황선영과 노병일(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부모의 교육참여와 따돌림이 학교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숙(2006)은 아동이 심리·환경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강한 충동성과 부적응을 일으키는데, 이 때 충동적 행동을 조절해주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연(2009)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낮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였다. 박은민(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학교적응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2. 노래심리치료

### 1) 노래의 치료적 기능

인류역사에서 노래는 사회적 문화적인 교류와 통합을 위한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다. 제의식, 노동요, 축제와 같은 집단의 행사에 노래는 때에 따라 치료를 위해,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집단원들 간의 단합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고대의 그림, 벽화 등에 나타난 결혼식 노래, 장례의 애가, 노동가, 향연에서 오락을 위한 음악, 신을 노래하거나 의식 또는 행렬에 사용된 음악, 기악반주에 수반한 서사시 등의 역사적 유물은 노래가 인류역사에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Grout, Palisca & Burkholder, 2005/2007).

특히 고대 샤먼의식에 음악의 사용은 질병치유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행위였다(박무원, 2005). 제의식에서 샤먼은 사람들의 질병치유를 위한 염원을 노래나 춤을 통해 대변해주었으며(김진숙, 2010), 이러한 샤먼의 예술표현은 질병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Davis & Gfeller, 1999/2002). 당시 사람들의 공통적인 염원인 질병치유를 위한 제의식에서 음악은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도 지속되었다.

노동요는 단순한 리듬을 변형시킨 구조적인 노래로 농경시대 공동체 생활에서 사람들 간의 응집력을 도모하여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였으며, 힘든 노동의 고단함을 노래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였다(Uhlig & Baker, 2011/2013). 뿐만 아니라 노래는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 이는 오늘날 교가와 국가와 같은 집단의 노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노래는 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노래는 인간의 삶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응축한 것으로(김아리, 2014),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노래가 보편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는 가사, 멜로디, 화성, 리듬 등이 조화를 이루어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보다 더욱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박환영, 2013),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반영해 줄 수 있다. Rodocy(1998)에 따르면 노래의 가사내용이 감상자의 개인적 이슈에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며, 이 때 음악의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감정과 생각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Daniel(2009/2009)은 노래에서 빠르기, 셈여림 등의 음악적 요소에 따라 가사의 의미가 강조되는데 이 때 감상자에게 더욱 깊은 기억을 남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래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Austine, 2008/2012). 노래는 인간의 감정을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야기된 생각, 태도, 가치, 행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심리치료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다(Bruscia, 1998/2006).

노래의 가사는 메시지 전달의 기능 뿐 아니라 노랫말 속의 상징, 비유, 은유 등을 통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회피했던 생각들과 감정을 수용해 주고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노래는 각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개별화된 반응을 일으킨다(최미환, 2006). 노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집단원들과 함께 분석하고 나누는 노래가사분석과정은 노래가사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노래 안에 자연스럽게 투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한다(Bailey, 1984; 김진, 2010).

## 2) 노래심리치료

노래심리치료는 노래와 음악요소를 이용한 음악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고, 언어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조경애, 강경선, 2014). 노래심리치료에서 사용되는 노래는 내담자의 선호곡이나 치료사가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선곡하기도 하며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노래심리치료에서 노래는 내담자에게 낯설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기존 노래들을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가사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과 연관된 심리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래심리치료에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노래 부르기, 노래 감상, 노래 대화하기, 치료적 노래 만들기, 노래 회상유도, 노래 그림그리기 등이 있다(정현주, 2005).

최미환(2006)은 준비-탐색-창작(Preparing-Exploring-Creating: PEC) 노래심리치료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는 과정중심(process-oriented) 치료방법으로 노래를 통해 핵심감정 확인과 성찰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감상, 회상, 연주, 창작의 작업방법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핵심감정을 파악하며, 이로부터 야기된 핵심감정을 노래와 언어화과정을 통해 표현하면서 통찰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준비-탐색-창작 노래심리치료는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1)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위한 노래심리치료

자신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억압을 하면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거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미숙하여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인

식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Johnson, 1993/2007). 아동기부터 자신의 감정에 대한 반응이나 처리능력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에 대한 반응이 미숙할 가능성이 높다. 융(C, Jung)은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은 개인적인 해석과 의미를 가지고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가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 대상에게 투사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장문정, 2014).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Radocy(1997)는 음악은 심리적 어려움과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기회를 주고 긍정적 경험을 통해 긴장, 불안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감소시켜준다고 하였으며 Borczon(1997/2004)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여 문제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고 대처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래 부르기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음색, 선율, 가사 등을 직접 표현하는 음악활동으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래의 가사, 멜로디, 리듬, 화성 등의 음악적 요소들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풍부한 감정표현이 가능하며, 역동적인 감정, 기분, 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한희원, 2003). Uhling & Baker(2011/2013)는 노래 부르기를 통해 개인적인 욕구나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하여 명확하지 않던 혼란스러운 정서들을 정돈시킬 수 있으며 Austine(2008/2012)은 노래 부르기가 정서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원 사이에서 표현하고, 수용받는 노래 부르기의 경험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준다(Uhlig & Baker, 2011/2013). 따라서 노래부르기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정서를 정화시키며, 자신의 내면문제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도 있도록 한다(Olivea, 1993/2005).

노래 대화하기는 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누는 방법이다. 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감정을 수용하고(이규정, 2002), 왜곡된 인식과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복잡한 감정을 노래 대화하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화과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 생각에 대해 올바르게 표현하는 대처방안을 학습하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다(Grock & Wigram, 2011; McDonald, et al., 2015). 송영미(2003)의 연구에 따르면 가사토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음악활동이 불안,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상 형성, 좌절, 실망, 무력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지닌 척수손상 환자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나라(2014)는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산모의 산후우울과 산후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임지혜(2009)는 노래심리치료가 시험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불안, 걱정, 긴장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최슬비나(2012)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집단 노래심리치료가 문화적응력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노래심리치료가 다양한 대상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하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도 노래심리치료가 부정적 정서를 탐색, 표현하도록 하고, 긍정적 정서를 함양시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에서는 문화적응에 따른 고립감, 따돌림을 경험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갈등, 가정과 학교에서의 문화차이로 인해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된다(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점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박기관, 2009; 손성진, 2007; 장은숙, 2008; 고흥월, 2013).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자신의 내적 자원과 강점을 파악하고 강화하도록 돕는 역량강화(empowerment)모델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화-발견-발전의 단계를 거치는 역량강화 모델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내적자원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자기역량을 강화시킨다(조미숙, 2009). 도기봉 외(2011)는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역량강화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조미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역량강화 집단사회 프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음악은 자기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과정을 제공한다. 음악활동에서 지지와 강화,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만족감, 성취감,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박선영, 1994; Ostwald, 1973, 최신행, 2007, 재인용). 노래 감상은 가사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여 내면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며(순진이, 2002), 가사내용에서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법이나 통찰을 얻기도 한다(정현주, 김동민, 2010; Baker, 2015).

긍정적, 심미적인 노래 또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가사 및 멜로디, 무드의 노래를 감상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개인 역량강화를 돕는다(최신형, 2007).

노래 만들기는 노래의 멜로디, 가사 등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어 노래를 만드는 활동으로 노랫말 채우기, 개사하기, 노래 변주하기, 작곡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노래 만들기 과정에서 내담자는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Paul & Simon, 2015), 자신에 대한 이해와 현재 내면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도록 한다(윤주리, 2012).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은 만족감, 성취감,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다(Baker & Wigram, 2005/2008; O' Callaghan, 1996). 노래 만들기 과정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도 증진될 수 있다(임현정, 2009; Katherine, 1995; Edgerton, 1990). 노래 만들기 중에서도 노랫말 채우기, 가사 만들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간단하고 쉬운 접근방법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강점과 내적자원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임현정(2009)은 내재화된 정서문제를 갖는 청소년에게 노래심리치료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언어사용, 눈맞춤 증가, 큰 목소리의 사용 등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최신형(2007)은 저소득층 부적응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노래만들기, 즉흥연주의 음악치료가 역량지각,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유의미한 효과가 보임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노래심리치료는 노래를 통해 내면의 문제를 탐색하고, 창작과정을 통해 표현하고 문제를 통찰하도록 한다. 또한, 내담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강화시켜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울산시 A구 소재의 Y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8세 다문화 가정 아동 10명으로 이들 중 5명은 실험집단, 5명은 비교집단으로 유의표집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선정기준과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 1)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아동
- 2)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 3) 시·청각 및 지적 장애를 갖지 않은 아동
- 4)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아동
- 5)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아동

<표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아버지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출신국가
실험 집단	남	8	한국	중국
	여	8	한국	중국
	여	8	한국	베트남
	남	8	한국	베트남
	여	8	중국	중국
비교 집단	남	8	한국	중국
	여	8	중국	중국
	여	8	한국	중국
	여	8	한국	베트남
	남	8	한국	베트남

## 2. 측정도구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

본 연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Sandhu & Asrabadi(1994)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의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SSIS는 이승중(1996)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척도는 이승중(1996)의 번안척도를 정석주(2013)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24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의 총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본 척도의 구체적인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문화적응스트레스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지각된 차별감	1, 2, 3, 4, 5, 6, 7, 8	8	.96
지각된 적대감	9, 10	2	.89
두려움	11, 12, 13, 14	4	.93
문화충격	15, 16, 17, 18, 19	5	.97
죄책감	20, 21, 22, 23, 24	5	.92
전체		24	.93

## 2)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Inventor : SE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최보가, 전귀연(1993)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Coopersmith(1981)의 척도를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권에 맞게 재 표준화된 척도이다(김영옥, 김성희, 2013).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내 자아존중감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정진술 문항(4, 8, 12, 16, 20, 24, 27, 30)은 역으로 점수를 채점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다음<표 3>과 같다.

<표 3>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총체적 자아존중감	1, 5, 9, 13, 17, 21	6	.69
사회적 자아존중감	2, 6, 10, 14, 18, 22, 25, 29, 31	9	.84
가정적 자아존중감	3, 7, 11, 15, 19, 23, 26, 28, 32	9	.83
학교 내 자아존중감	4, 8, 12, 16, 20, 24, 27, 30	8	.72
전체		32	.77

##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실험-비교집단 설계’

로 진행되었다. 실험집단에는 노래심리치료를 적용하고, 비교집단은 독서시간이 시행되었다. 사전검사는 1회기 노래심리치료 시작 전에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는 종결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 모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사전/사후 실험-비교 집단설계

집단	사전검사	음악치료활동(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sub>1</sub>	X	O <sub>3</sub>
비교집단	O <sub>2</sub>		O <sub>4</sub>

(X : 처치, O<sub>1</sub> - O<sub>4</sub> :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 4.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 1) 노래심리치료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08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 2회 40분씩, 총 14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노래심리치료 기법 중에서는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가사토의, 노랫말 채우기, 개사하기 기법이 포함된다.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한 회기 구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활동	시간	내용	목적
도입	3분	인사노래	회기의 시작을 알림
중심활동	30분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
마무리	7분	음악경험에 대한 소감 나누기, 마침노래	회기의 종결을 알림

도입과 마무리 활동에서 사용되는 인사노래, 마침노래는 연구자가 작사·작곡한 곡을 사용하여 내담자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내담자들의 이름을 각각 넣어 개별적인 인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심 활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준비-탐색-창작(PEC)의 노래심리치료 모델과 대화-발전-발견과정의 역량강화(empowerment)모델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 2)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핵심감정의 확인 및 성찰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치료과정에서 정립된 노래심리치료 모델(최미환, 2006)과 강점중심 접근의 사회복지 실천 모델인 역량강화 모델(양숙미, 2000)을 근거로 하여 준비-탐색-창작-역량강화(P-E-C-E)단계로 연구자가 대상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노래심리치료 모델과 역량강화 모델에서 중복되는 탐색과정을 통합하고, 창작활동과 역량강화를 접목하여 창작과정을 통해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은 1-2회기는 도입단계, 3-12회기는 작업단계, 13-14회기는 종결단계로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도입단계는 준비-탐색-창작-역량강화 단계에서 첫 번째 준비단계로 친숙한 노래 활동을 통해 흥미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치료사와 집단원, 집단원간의 관계형성과 상호교류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내담자들이 음악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탐색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작업단계는 탐색-창작-역량강화를 단계별로 적용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긍정적·부정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이로 인해 야기된 감정을 노래활동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였다. 내면의 문제를 탐색하고 통찰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탐색하여 개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종결단계는 작업단계에서 발견하고 강화한 개인역량을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구체적인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단 계	목표	회 기	주제	활동내용	치료적 논거
도 입	관계 형성	1	하나뿐인 나의 노래	치료사가 개사한 《오블라디 오블라다》로 자기소개 노래 만들어보고 노래 부르기	자기소개 활동은 그룹 내 친밀감, 유대감을 가지도록 하며, 노래에 대한 익숙함을 제공하여 집단원에게 노래심리치료의 준비단계를 경험하게 한다
				《도레미 송》	노래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상호 교류 증진	2	우리들의 도레미 송	빈 칸에 맞는 낱말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집단원들과 가사채우기, 노래부르기	집단원들은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사회화 기술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

작	내면 탐색	3	루돌프의 마음은 어땠을까 ?	《루돌프 사슴코》 노래를 부르고,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토의하기. 《렛잇 고》 노래 부르기, 가사토의 겨울왕국 줄거리를 나누고	가사토의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그 후의 언어화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다(Borczon, 1997/2004).
		및	4	let it go	노래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힘들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후 대처방안 이야기 나누기
	부정적 감정 표현	5	마음이 울적할 땐 이렇게 해요	《콩따리 사바라》 노래부르기, 가사토의 가사 토의를 통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토의해본 후, 가사 바꾸어 노래 부르기	내면에 억압되었던 감정, 언어표현은 부정적 감정의 정화를 도울 수 있다(조경애, 강경선, 2014).
		및	6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래를 감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토의하고 가사 바꾸어 노래 부르기
업	탐색 및 함양	7	잘 될거야	《슈퍼스타》 노래 감상하고 현재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고민내용을 가사채우기를 하고, 집단원들은 후렴구인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 부르기	‘고민’이라는 주제를 가진 노래 활동은 집단원들에게 보편성, 정보공유의 경험을 통해 집단의 응집력, 역동성이 증진되도록 한다(Yalom, 2005/2008).
		8	이럴땐,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노래감상하고 노래 부르기 다양한 감정(기쁨, 슬픔, 외로움, 화날 때)을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탐색하고 창작활동을 통해 올바른 정서표현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서 탐색		탐색하고, 올바른 표현방법 토의 및 가사 바꾸어 노래 부르기	문화적응 스트레스로부터 야기된 혼재된 감정에 대해 올바른 대처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긍정 적 강화	9	나의 매력과 친구의 매력을 찾아요 나의 《참 매력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에 대해 가사 채우기 집단원들간의 매력을 찾아 토의 및 가사채우기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창작하는 과정과 집단원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강화하도록 한다.
	10	참 좋은 말 《참 좋은말》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았던 말, 집단원들이 각 집단원에게 해주고 싶은 좋은 말 가사채우기	자신에 대한 집단원의 좋은말은 자기강화를 제공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여 자기 인식과 총체적 자아존중감 향상을 돕는다
긍정 적 내적 자원 탐색	11	내게 힘을 주는 건 뭘까? 《비타민》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에서 집단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사 채우기,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토의하기	긍정적 자원을 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래는 자신의 긍정적 내적자원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개인역량을 증진하도록 한다
	12	난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이 잘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해 토의 및 가사 채우기	강점과 도전의식을 고양하는 내용의 노래와 창작활동은 그룹원들에게 자신감을 증진시켜 자아존중감 향상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중 결 긍정 적 자아 형성	13	나의 장래희망 은 《무비스타》 노래를 감상한 후, 자신의 장래희망에 대해 집단원과 이야기 나누기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의 노래와 가사토의를 통해 집단원은 희망을 고취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14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각 집단원의 이름을 넣어 노래 부르기, 소감 나누기	표현하고 수용받는 경험의 노래활동은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노래심리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치료적 논거는 다음과 같다. 1-2회기는 관계형성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1회기에서는 말하는 듯한 느낌의 노래인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사용하여 노래 부르기가 익숙하지 않은 집단원들에게 노래활동에 대한 친밀감과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곡하였다. 자기소개 노래를 개사하고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노래활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자기소개라는 주제를 통해 처음 음악활동을 하는 집단원들간에 서로 유대감을 가지도록 한다. 2회기의 《도레미 송》은 집단원들에게 노래창작과정을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곡하였다. 집단원들과 함께 계이름 도부터 시까지 첫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 또는 문장을 가사 채워넣기를 한 후, 노래 부르기를 한다. 집단원들은 노래를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교류와 사회화 기술이 증진되며, 완성된 노래를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3-5회기는 각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가사토의, 노래 만들기를 통해 내면을 탐색하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회기 《루돌프 사슴코》, 4회기 《렛잇고》를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를 한 다음 집단원들이 노래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래가사 내용에서 주인공이 겪는 ‘외로움’, ‘쓸쓸함’에 대한 정서를 탐색하고, 자신의 경험도 집단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투사적 감상기법은 연상되는 생각과 느낌, 기분을 분석하여 자아 탐색과 재인식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문제를 확인 및 수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최미환, 2006). 또한, 언어화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할 수 있으며(Borczon, 1997/2004), 집단원들의 부정적 감정표현 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행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5회기의 《쿵따리 샤바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가사내용으로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으며, 재미난 후렴구

와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곡으로 용이하여 선곡하였다. 집단원에게 마음이 울적하거나 답답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울할 때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대화를 나눈 후, 개사한 곡을 노래 부른다.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인지하고, 대화를 통해 올바른 대처방안을 학습할 수 있다. 6-7회기는 긍정적 정서탐색 및 함양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6회기의 《괜찮아요》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긍정적으로 자기비난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곡되었다. 집단원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는 요소에 대해 함께 토의를 한 다음 가사채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 7회기는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간단한 코드와 후렴구를 개사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사 채우기를 하여 노래를 불렀다. 같은 연령의 집단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집단 내에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위안을 느끼는 보편성과 고민해결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Yalom, 2005/2008). 8회기는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탐색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었다. 《내가 말했잖아》는 가사가 기쁘거나 슬플 때의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개사하여 기쁨, 슬픔, 신남, 화남, 외로움, 우울함과 같은 긍정적·부정적인 감정을 탐색하기에 용이하여 선곡하였다. 집단원은 제시된 감정을 느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대화를 나누고 가사 채우기,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한다. 이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인지하고 집단원들과 자신의 태도를 비교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표현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한다. 9-10회기는 긍정적 강화를 목적으로, 9회기는 광고에서 사용되었던 다장조와 사장조로 이루어진 간단한 코드와 단순한 멜로디로 이루어진 곡으로 치료사가 개사한 곡으로 선곡하였다. 광고에서 들어본 친숙한 노래의 선곡은 집단원에게 노래활동에 흥미를 더욱 유

발할 수 있으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매력을 찾아 개사하여 노래를 부른 다음 각 집단원의 매력을 찾아보고 개사하여 노래를 부르기 활동을 하였다. 자신의 매력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과정과 집단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재강화하도록 한다. 10회기의 《참 좋은말》은 다장조의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긍정적인 가사내용을 담은 동요로 집단원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았던 말과 각각의 집단원이 순서대로 집단원에게 하고 싶은 좋은 말을 가사채우기 활동을 한다. 내담자는 과거에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았던 말이나 행복했던 모습을 회상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재강화할 수 있으며, 집단원들을 통해 새로운 자기인식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 11-12회기는 긍정적 내적자원 탐색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11회기의 박학기의 《비타민》은 긍정적 내적자원을 연상하고, 탐색하기 위해 선곡되었다. 노래감상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내적자원을 탐색하고 가사채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직접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희망을 고취할 수 있다. 12회기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는 사장조의 밝고 씩씩한 분위기의 창작동요로 ‘넌 할 수 있어’라는 직접적인 가사내용이 각 집단원들에게 지지감을 제공한다. 집단원은 노래 부르기를 한 다음 내가 잘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을 대화를 나눈 후, 노랫말 채우기 활동을 하였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노래로 표현하도록 하여 성취감, 자신감을 향상시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강화가 될 수 있다.

종결 단계인 13-14회기는 긍정적 자아 형성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13회기의 루씨의 《무비스타》는 빠르고 경쾌한 리듬의 곡으로 도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장래희망을 생각해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곡하였다. 노래를 감상하고 함께 불러 본 다음, 자신의 장래희망을 이야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

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토의과정에서 장래희망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 희망을 고취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한다. 14회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따뜻한 느낌의 곡으로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선곡하였다. ‘당신’이라는 부분에 집단원의 이름을 각각 넣어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고 난 후의 소감을 나눈다. 본 활동을 통해 노래를 불러 표현하는 경험과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 개인역량 증진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가지도록 한다.

##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거주지, 나이, 부모의 출신국가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와 자아존중감 점수의 사전 점수와 그 하위요인에 대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넷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사전과 사후의 차이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n=10)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 IV. 연구결과

###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와 각 하위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와 각 하위요인의 사전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p > .05$ )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측정변인	평균순위(순위합)		U	Z	p
	실험집단(n=5)	비교집단(n=5)			
문화적응 스트레스	4.90(24.50)	6.10(30.50)	9.50	-.63	.548
지각된 차별감	5.60(28.00)	5.40(27.00)	12.00	-.11	.916
지각된 적대감	5.50(27.50)	5.50(27.50)	12.50	.00	1.000
두려움	5.60(28.00)	5.40(27.00)	12.00	-.11	.914
문화충격	5.50(27.50)	5.50(27.50)	12.50	.00	1.000
최책감	4.50(22.50)	6.50(32.50)	7.50	-1.09	.275
자아존중감	4.30(21.50)	6.70(33.50)	6.50	-1.27	.206
총체적 자아존중감	4.60(23.00)	6.40(32.00)	8.00	-.95	.343
사회적 자아존중감	4.30(21.50)	6.70(33.50)	6.50	-1.26	.207
가정적 자아존중감	5.40(27.00)	5.60(28.00)	12.00	-.11	.916
가정적 자아존중감	4.20(21.00)	6.80(34.00)	6.00	-1.40	.161

\*  $p < .05$

## 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 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p < .01$ ).

<표 8>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치	실험집단 변화량 평균(표준편차)	비교집단 변화량 평균(표준편차)	U	Z	p
문화적응 스트레스	3.00(15.00)	8.00(40.00)	.00	-2.80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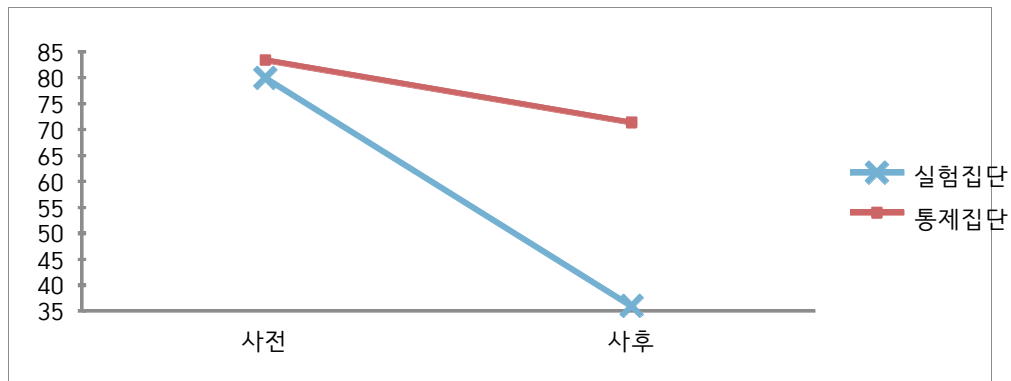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실험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나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9>, <그림1>과 같다.

<표 9>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집단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Z	p
실험집단	80.00(12.47)	36.00(.00)	-2.02	.043*
비교집단	83.40(11.97)	71.40(11.19)	-1.76	.078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평균점수

## 2)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노래심리치료 실시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지각된 차별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p < .01$ ), 지각된 적대감( $p < .05$ )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치	실험집단 변화량		U	Z	p
	평균(표준편차)	비교집단 변화량 평균(표준편차)			
지각된 차별감	3.00(15.00)	8.00(40.00)	.00	-2.62	.009**
지각된 적대감	3.60(18.00)	7.40(37.00)	3.00	-2.15	.032*
두려움	3.00(15.00)	8.00(40.00)	.00	-2.64	.008**
문화충격	3.00(15.00)	8.00(40.00)	.00	-2.64	.008**
죄책감	3.00(15.00)	8.00(40.00)	.00	-2.63	.009**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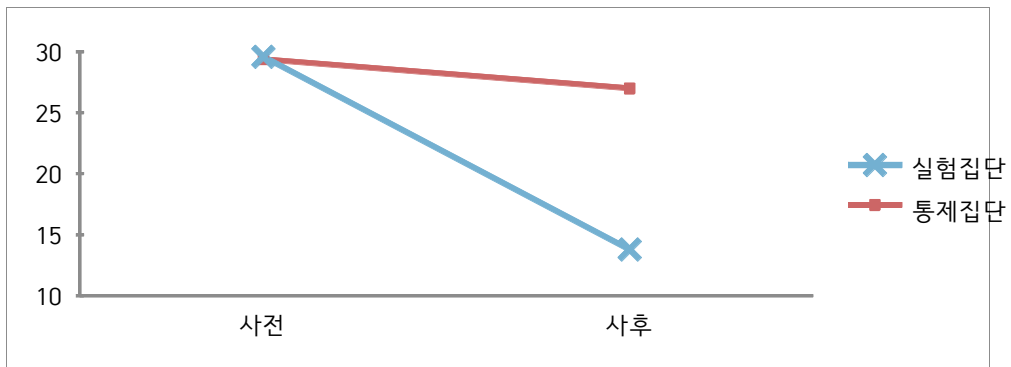
각 하위요인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지각된 차별감	실험집단	29.60(4.22)	13.80(2.39)	-2.02	.043*
	비교집단	29.40(4.10)	27.00(4.74)	-1.36	.176
지각된 적대감	실험집단	5.80(1.79)	2.20(.45)	-2.03	.042*
	비교집단	5.80(2.28)	4.60(1.52)	-1.86	.063
두려움	실험집단	9.60(1.82)	4.60(.89)	-2.06	.039*
	비교집단	10.00(3.24)	10.80(3.19)	-1.13	.257
문화충격	실험집단	18.00(3.94)	8.00(2.00)	-2.03	.042*
	비교집단	19.00(3.39)	14.80(2.68)	-2.03	.042*
죄책감	실험집단	17.00(3.08)	7.40(1.82)	-2.03	.042*
	비교집단	19.20(2.39)	14.20(1.30)	-2.03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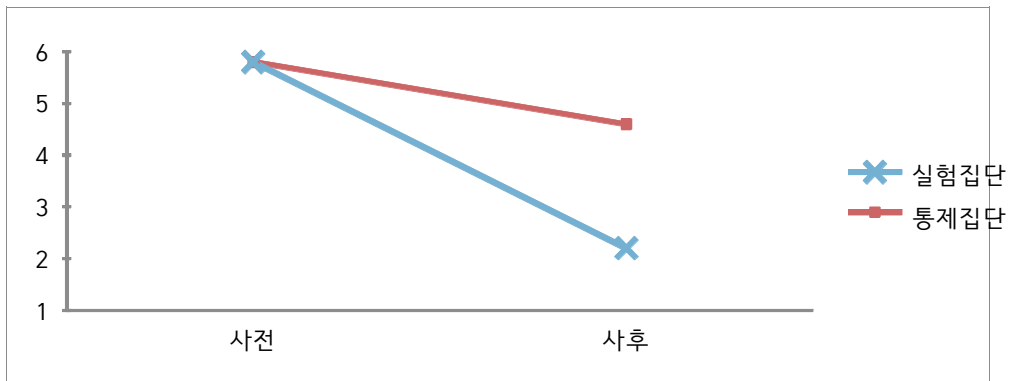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지각된 차별감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나 비교집단은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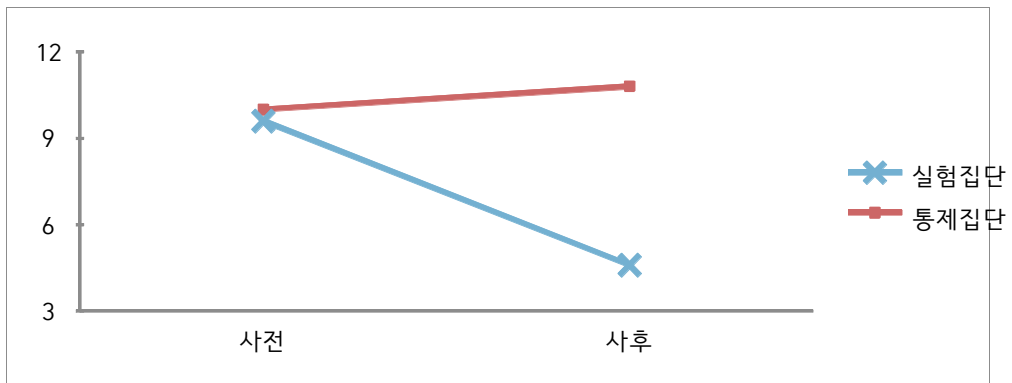
<그림 2>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나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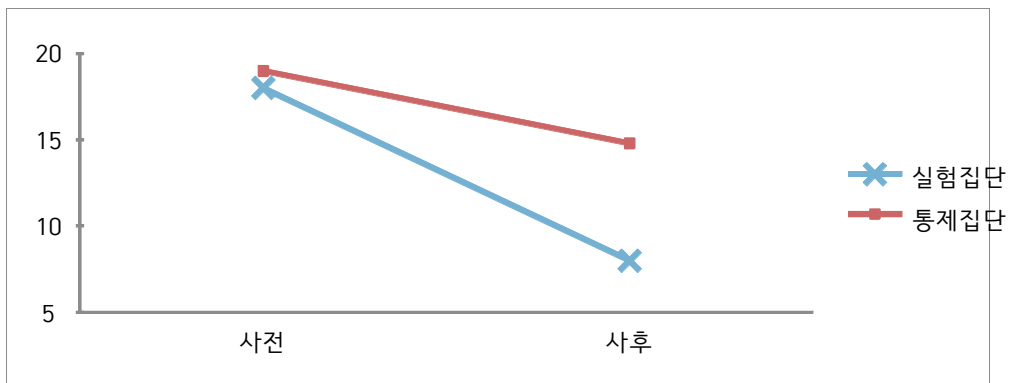
<그림 3>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나 비교집단은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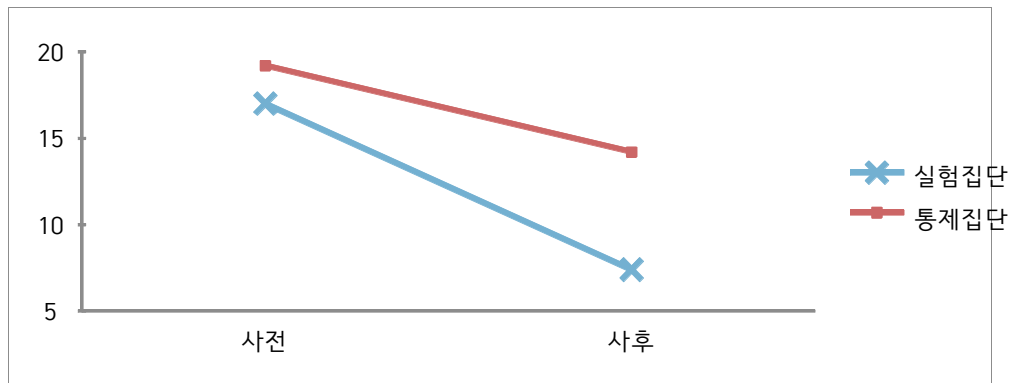
<그림 4> 두려움

문화충격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며, 비교집단도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문화충격

죄책감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며, 비교집단도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죄책감

### 3. 자아존중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 1) 자아존중감 전체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에 대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변화( $p < .01$ )는 유의미 하였다.

<표 12> 자아존중감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치	실험집단 변화량	비교집단 변화량	U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아존중감	8.00(40.00)	3.00(15.00)	.00	-2.62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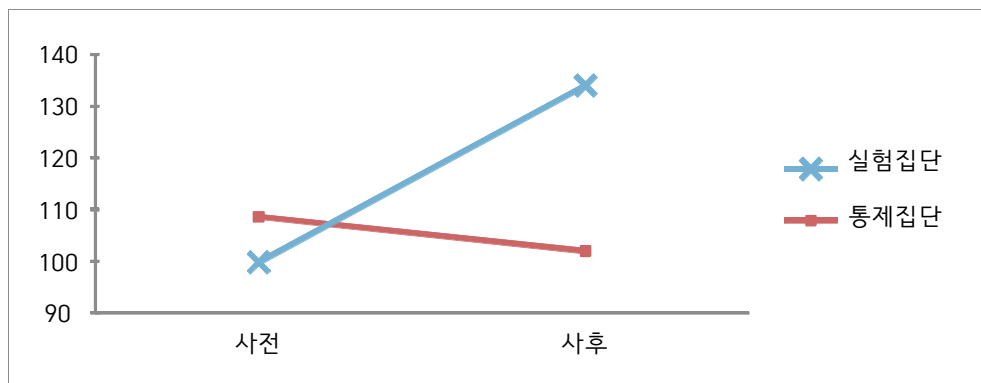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은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3>, <그림 7>과 같다.

<표 13> 자아존중감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99.80(9.63)	134.00(9.46)	-2.02	.043*
비교집단	108.60(10.11)	102.00(11.42)	-1.23	.221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7> 자아존중감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평균점수

## 2)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회적 자아존중

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변화( $p < .01$ )를 보였으나, 총체적 자아존중감, 학교 내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치	실험집단 변화량		U	Z	p
	평균(표준편차)	비교집단 변화량 평균(표준편차)			
총체적 자아존중감	7.30(36.50)	3.70(18.50)	3.50	-1.89	.059
사회적 자아존중감	8.00(40.00)	3.00(15.00)	.00	-2.63	.009**
가정적 자아존중감	8.00(40.00)	3.00(15.00)	.00	-2.62	.009**
학교내 자아존중감	7.00(35.00)	4.00(20.00)	5.00	-1.58	.115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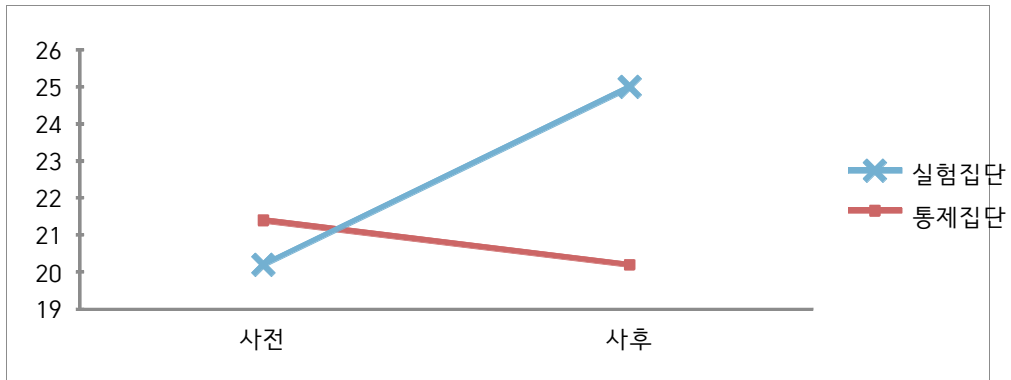
각 하위요인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총체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20.20(2.59)	25.00(3.54)	-1.63	.104
	비교집단	21.40(1.52)	20.20(4.32)	-.68	.496
사회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27.40(4.67)	39.60(3.51)	-2.03	.042*
	비교집단	31.00(3.24)	25.60(1.67)	-2.04	.041*
가정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32.40(4.39)	40.00(3.16)	-1.83	.068
	비교집단	32.40(3.65)	31.80(2.77)	-.37	.713
학교 내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19.60(3.65)	28.80(2.39)	-2.02	.043*
	비교집단	23.40(5.50)	24.40(5.22)	-.14	.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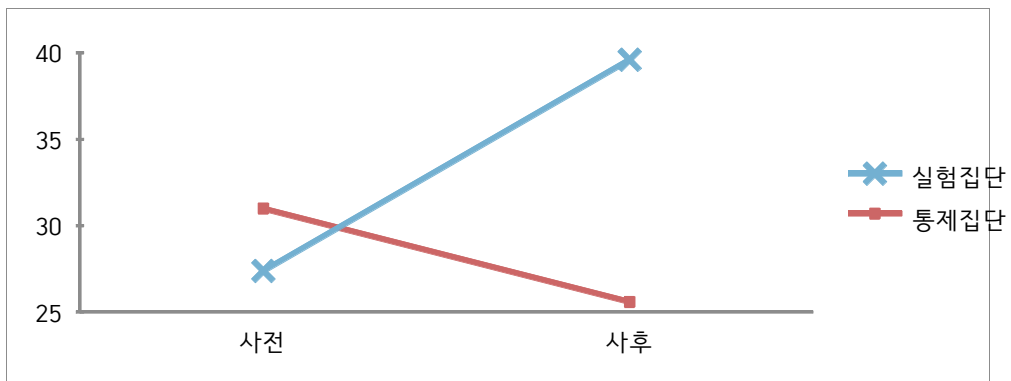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총체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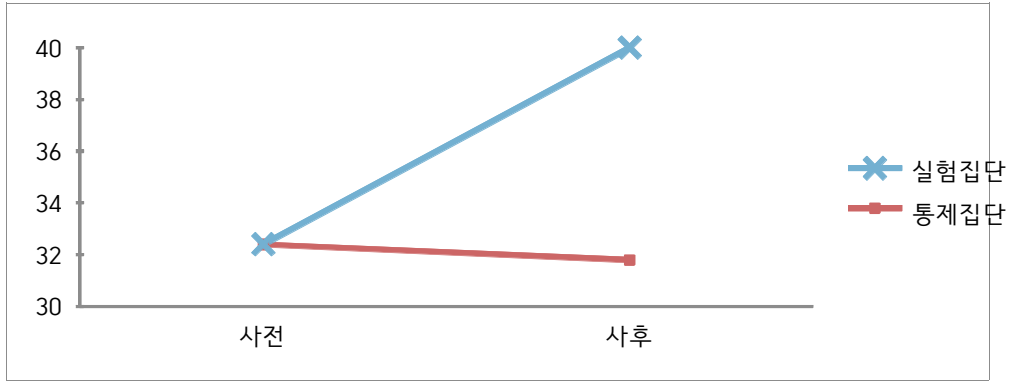
<그림 8>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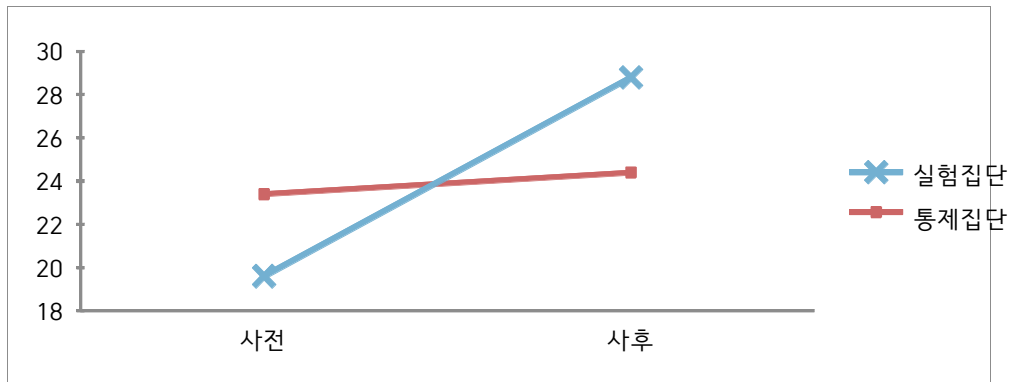
<그림 9>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내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인 반면 비교집단은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학교 내 자아존중감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울산시 A구 소재의 Y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들로 연구의 목적에 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얻은 총 10명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대상자들의 담임교사 2인과 교무 담당교사 1인인 총 3인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험집단 5명, 비교집단 5명으로 유의표집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 8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 회기당 40분씩 주 2회, 총 14회 노래심리치료가 진행되었으며 비교집단은 기존에 실시하던 학교에서 시행하던 독서시간을 가졌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정보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다문화가정아동의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점수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전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척도 및 하위 요인 사전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에서 유의미한 변화( $p < .01$ )를 보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지각된 차별감, 두

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p < .01$ ), 지각된 적대감( $p < .05$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점수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점수는 80.00점에서 36.00점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며, 하위요인인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도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나타냈다.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내면을 탐색하고 핵심감정을 파악하여,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노래활동이 실험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인 자아지각으로 변화시키고 내적자원이 강화되도록 음악심리치료를 실시한 정현정(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함과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를 실시한 황혜진(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노래심리치료를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에서 유의미한 변화( $p < .01$ )를 보였다. 하위요인에서는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변화(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내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 $p > .05$ )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의 추이를 보기위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99.80점에서 134.00점으로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였다. 하위요인에서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내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변화( $p < .05$ )를 보인 반면, 총체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 $p > .05$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극 만들기 음악치료를 실시한 김숙정(2011)의 연구와 시설아동에게 노래심리치료를 적용한 박은진(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김미선(2009)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체 자아존중감과 하위요인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으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향상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김미선(2009)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만 일치하며, 총체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내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준비-탐색-창작-역량강화 과정의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면의 문제와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탐색하고 표현 및 창작 과정을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내적자원을 탐색하고 강화하여 개인역량을 증진시킨 노래심리치료과정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노래심리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적 방법이 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 증명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시 Y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10명의 국한된 작은 표본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는 표본의 크기를 더

크게 하여 인원수를 늘이고, 여러 지역에서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연구로 치료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은 발달과정에서 시급한 문제이므로 음악치료에서도 언어발달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언어발달 이외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음악치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생활을 통해 적응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또래와 다른 차별감 등으로 일반가정 아동보다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접근의 음악치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홍월 (2013). 다문화가정 학생의 생활지도 및 상담. 권오현(편). **다문화교육의 이해**, (pp. 383-418).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교육부 (2012). **교육통계연보**. <http://www.moe.go.kr>에서 2015년 9월 1일 자료 얻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에서 2015년 8월 6일 자료 얻음.
- 권순희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권오현(편). **다문화교육의 이해**, (pp. 213-258).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희연, 이미숙, 전병운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문헌 분석.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3(4), 283-306.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 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미선 (2009).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미숙, 김유경, 김안나, 김효진, 성수미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숙정 (2011). **음악극 만들기 경험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김아리 (2014).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학령기 화상환자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아영, 김수인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심리학회**, 25(4), 853-873.
- 김연진 (2015). 정서순화예술놀이를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 연구. **부모교육연구**, 12(1), 39-61.
- 김영란, 김영태 (2011). 취학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73-88.
- 김영옥, 김성희 (2013). 가정폭력 노출 아동용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초등교육연구**, 26(3), 43-68.
- 김은선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진 (2010).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가사분석활동을 통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관한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7(2), 23-45.
- 김진숙 (2010).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현실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12), 39-70.
- 김형인 (2006). 미국의 다문화 정책과 교훈. **국회도서관보**, 43(5), 16-28.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 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1), 107-135.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다누리 (2015).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현황**. [www.liveinkorea.kr](http://www.liveinkorea.kr)에서 2015. 8. 6 자료 얻음.
- 도기봉, 오주, 신정인 (2011).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역량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1), 148-174.
- 박기관 (2009). 다문화 시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9년 동계학**

술대회 논문집, 87-106.

박무원 (2005). 유럽의 음악임상치료 효과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13, 7-40.

박선영 (1994). *음악치료의 구조와 치료실체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은민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학회*, 22(1), 37-54.

박은진 (2007). *노래심리치료가 시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주희, 남지숙 (2010).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21(2), 129-152.

박진우, 장재홍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 심리적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박환영 (2013).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1.

법무부 (2015). **2014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http://www.moj.go.kr>에서 2015년 11월 03일 자료 얻음.

변미희,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8(2), 5-29.

손성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영미 (2003). *가사토의를 중심으로 한 Group음악활동이 척추손상 환자*

- 의 anxiety와 depression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순진이 (2002). 노래심리치료를 위한 한국 대중가요의 내용 분석: 사회 심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이화교육논총*, 12, 473-486.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심우엽 (2009). 다문화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양숙미 (2000). 발달장애인의 보호제공자를 위한 가족지지모델 고찰. *사회복지리뷰*, 5(1), 73-93.
- 양숙미 (2001).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이 차참여한 장애인 부모의 상호지지 변화과정: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8(1), 59-88.
- 양승민 (2007).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미래교육연구*, 20(1), 1-32.
- 우희숙 (2013). 다문화가정과 자녀교육. 권오현(편). **다문화교육의 이해**, (pp. 191-21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우희정 (2015).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정서조절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3), 551-563.
- 윤지인, 최범식 (2009). GMIP심상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27-146.
- 윤주리 (2012). 집단음악치료가 관심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9(1), 55-71.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33, 38-74.

-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3), 39-61.
- 이광성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4(1), 91-107.
- 이규정 (2002). 정신질환자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에 대한 음악의 효과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나라 (2014).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산모의 산후우울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논총**, 15, 85-115.
- 이테일리 (2015. 4. 28). 2015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 '7만명 육박'. <http://www.edaily.co.kr>로 검색.
- 이수연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2), 45-62.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34(2), 189-219.
- 이순형, 권미경, 최인화, 김미정, 김혜라 (2011). **유아다문화교육**. 경기: 교문사.
- 이승종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원령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변인에 대한 문헌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409-431.
-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혜경, 전해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임은미, 정성진, 이수진 (2010). 상담일반 :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연구**, 11(3), 957-973.
- 임지혜 (2009).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청소년의 시험불안 감소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77-106.
- 임현정 (2009).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증진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문정 (2014). 부정적 감정 조절을 위한 감정중심 가이딩의 심상음악치료 사례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 16(2), 69-91.
- 장은숙 (2008).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이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석주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은희, 김태강, 박 윤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과 진단·평가에 대한 문헌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13-141.
- 정정화, 이강이 (2014).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5(6), 47-64.
- 정태미 (2009). 음악치료 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정하성, 우 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요약집**, 12, 87-88.
- 정현정 (2009).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1-31.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조경애, 강경선 (2014). 집단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2(1), 85-103.
- 조미숙 (2009). 역량강화 집단사회사업이 한 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6(3), 125-140.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진은영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경숙 (2006). **아동발달심리학**. 경기: 교문사.
- 최미영 (2010).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언어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의 탐색. **음악교육공학**, 10, 41-56.
- 최미환 (2006). 노래심리치료. 정현주 (편). **음악치료의 기법과 모델**, (pp. 235-266). 서울: 학지사.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학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소림 (2006).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활동이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슬비나 (2012). **해외 유학생의 문화적응력 강화를 위한 소집단 노래심리치료**.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신형 (2007). 저소득층 부적응 아동의 역량(Empowerment)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이화교육논총**, 17, 299-316.
- 최진영 (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 현 (2014). 다문화시대 한국민요과 K-Pop. *한국음악문화연구*, 5, 25-36.
- 통계청 (2013). 2013년 출생통계. [http:// www. kostat. go. kr](http://www.kostat.go.kr)에서 2015. 7. 15 자료 얻음.
- 통계청 (2015). 2015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http:// www. kostat. go. kr](http://www.kostat.go.kr)에서 2015. 7. 15 자료 얻음.
- 한희원 (2002). 성악 즉흥기법이 음성증상을 가진 성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상심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표현어휘 발달과 성차. *언어치료연구*, 19(1), 193-209.
- 황선영, 노병일 (2015). 다문화가족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 51-76.
- 황혜진 (2014). 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Austine, D. (2012). The theory and practice of vocal psychotherapy : songs of the self. 한국성악심리치료사협회(역). *성악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자기에 대한 노래*.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08).
- Bailey, L. M. (1984). The use of song in music therapy with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Music Therapy*, 4(1), 5-17.
- Baker, F. & Wigram, T. (2008). Songwriting : methods, techniques and

-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최미환(역).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 치료의 임상 및 교육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5).
- Baker, F. (2015). What about the music? music therapists's perspectives on the role of music in the therapeutic songwriting process. *Psychology of Music*, 43(1), 122-139.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orczone, R. M. (2004). Music therapy group vignettes. 이정실(역). **집단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7).
- Brian, K. F., Bohdan, K. & Willam, A. V. (2000).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exican-Origin adults in Cliforni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3), 295-313.
- Bruscia, K. E. (2006).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김영신, 최병철 (역). **음악심리치료의 역동성**.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8).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 of self-esteem(2nd ed)*.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Davis, W. B. & Gfeller, K. E. (2002). A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김수지, 고일주, 권혜경(역). **음악치료학 개론**. 서울: 권혜경음악치료센터(원서출판, 1999).
- Daniel, J. L. (2009). The world in six songs : How the musical brain created human nature. 장호연(역). **호모 무지크스: 뇌, 진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여섯 가지 노래**. 서울: 도서출판 마티(원서출판, 2009).
- Edgerton, C. D. (1990). Creative group songwriting. *Music Therapy*

*Perspectives*, 8(1), 15-19.

- Ehlers, C. L., Gilder, D. A., Criado, J. R. & Caetano, R. (2009). Acculturation stress, anxiety disorders, and alcohol dependence in a select population of young adult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Addiction Medicine*, 3(4), 227.
- Grock, D. & Wigram, T. (2011). Receptive methods in music therapy. 문소영, 이윤진(역). *음악치료 수용기법*.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7).
- Grout, D. J., Palisca, C. V. & Burkholder, J. P. (2007). History of western music. 민은기 외 (역).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상)*. 서울: 이앤비플러스(원서출판, 2005).
- Johnson, R. A. (2007). Owing your own shadow. 고혜경(역).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서울: 에코의 서재(원서출판, 1993).
- Katherine, A. L. (1995). Song of healing : songwriting with an abused adolescent. *Music Therapy*, 13(1), 93-108.
- Kim, G. S. (2008).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Youth Culture Publishes Forum*, 18, 58-95.
- McDonald, J., Codrea, A. & Gavin, B. (2015). A pilot music group for young people attending a community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 *Irish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32, 259-264.
- O' Callaghan, C. C. (1996). Lyrical themes in song written by palliative care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33(2), 74-92.
- Olivea, D. M. (2005). Healing with sound. 이정실, 이정은(역). *소리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3).
- Paul, L. & Simon, B. (2015). Voicing passion : the emotional economy of

- songwriting.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8(2), 142-157.
- Radocy, W. B. (1997). Personal perspectives on research :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 342-350.
- Root, D. L. (2001).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3), 1335-1354.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Preliminary findings 1.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Uhlig, S. & Baker, F. (2013). Voicework in music therapy : research and practice. 정현주 외(역). *음악치료에서의 목소리 활용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11).
- Yalom, I. D. & Leszcz, M. (2008).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장성숙(역).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5판*. 서울: 하나의학사(원서출판, 2005).

<부록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					
2	학교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비교할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					
4	나는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					
5	학교생활에서 나와 같이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 부당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7	나는 행동 때문에 친구들에게 부당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8	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서 친구들이 나와 사귀려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9	학교친구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10	나는 얼마나 아빠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깝다고 느낀다					
11	나는 친구들에 비해 한국어를 못하는 것 같아 친구와 말하는 것이 두렵다					

12	나는 친구들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두려움을 느낀다					
13	나는 외모가 한국인 친구들과 달라 친구를 사귀는 것이 두렵다					
14	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 학교생활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15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빠의 나라에 대해 놀리는 것이 힘들다					
16	나는 얼마나 아빠가 학교생활을 이해하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17	나는 한국어가 어려워 학교시험에 대해 걱정이 많다					
18	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나는 학교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19	나는 가정생활과 다른 학교 생활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20	나는 학교생활에서 친구와 사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21	한국인 친구들이 학교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22	나는 한국친구와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친구들과 사이에 외로움을 느낀다					
23	나는 학교생활에서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24	나는 학교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킬 것 같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한다					

<부록 2> 자아존중감 척도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할 수 있다					
2	나는 내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3	부모님은 나의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4*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5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					
6	나는 친구가 많다					
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8*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다					
9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0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11	나는 집에서 항상 행복하다					
12*	나는 학교에서 가끔 화날 때가 있다					
13	나의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14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1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16*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17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18	나는 남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다					
19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20*	나는 학교성적에 실망된다					
2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22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23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24*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25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26	나는 좋은 아들 또는 딸이다					
27*	내가 좀 더 나은 학생이면 좋겠다					
28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29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만하다					
30*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내가 좀 더 잘 이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31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다					
32	우리 가족 중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 표시는 역채점 문항)

# ABSTRACT

## **The Effects of Song Psycho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on, Seonyoung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ong psycho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en subjec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tending Y Elementary School in Ulsan were purposive sampled. The experimental group was assigned into song psychotherapy and the compared group into reading class. The song psychotherapy was conducted total of 14 sessions from August 24 to October 9, 2015 with a 40-minute session twice per week. During the 14-session experiment period,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song psychotherapy designed to reduce acculturation stress and increase self-esteem, whereas the compared group participated in the old reading hours in school.

Before the experiment, the two groups were measured with the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 and the Self-Esteem Inventory (SEI). The measurements demonstrated that the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the same. The intervention of song psychotherapy program was followed by the Mann-Whitney U test to see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n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and the Wilcoxon Matched Pair test to examine the progress of experiment and compared group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results of Mann-Whitney U test show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 $p < .01$ ) i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 and compared group. The results of Wilcoxon Matched Pair test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e two groups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reveal that the experimental group made an increase i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score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 $p < .05$ ) and that the control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 $p > .05$ ). Those findings imply that a song psychotherapy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